

도의회 회계연도 결산 심사

# 행사성 운영 예비비 지출 부득이한 경우 빼고 자제를

농산경위,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당부... 사업 집행 잔액 과다 발생도 지적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난 11일 제382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를 갖고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농산경계위원회 위원들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근거한 회계운영 및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등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송성환 의원(전주7)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사남관해상풍력 민관 협의회 운영사업 등 행사운영 사업은 필요하고 납득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행사성운영의 예비비 지출은 사

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 결산현황을 청취하면서 금액이 너무 저 조합을 지적하고, "혁신도시 조성의 이익과 성과가 확산 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두세훈 의원(완주2)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체험시설' 구축사업 등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 사업에 대해 지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경삭감을 통해 예산이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추진을 당부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새남편 대행사업에 비해 동부권은 사업이 전무함을 지적하면서, "대규모 수조연료전지 사

업 등 주민과 기관이 하나의 사업체가 될 수 있는 동부권역 신규 대행사업 구상 및 발굴"을 당부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AI 구제역 등 동물전염병에 대한 방역이 현재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홍보나 교육을 좀 더 강화해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함에 있어 수산분야 업무가 새남편해양수산국으로 이관됐으나 기금은 농축산식품국에서 운용하고 있어 기금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담당부서가 서로 협력해 운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전지환 표정으로 질의 응답하는 양승조 총남지사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총남도지사기 지난 1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집행률 낮은 사업 본예산 편성시 내용 보장 검토를”

한복위, 복지여성보건국 등 회계연도 결산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지난 11일 제382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를 갖고 환경복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새남편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이명연 위원장(전주 11)은 "자활장려사업이나 저소득층 급여치료 사업 등을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데, 이월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경우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상기에 향후 본예산 편성시 사업 대상자 및 내용에 대한 보장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전주 5)은 "세입 결산 중 미수납액의 주요 요인이 일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5,456만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함과 동시에 향

후 결산처분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고창 2)은 정책질의를 통해 "최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보릿대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관련 부서 및 각 시·군의 협업을 통한 조속한 행정 계도 및 조치"를 요구하며 "매년 같은 시기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 만큼 해당시기 행정력을 집중시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진형석 의원(민주 비례)은 과별 성과지표와 관련해 "노인복지시설의 성과지표가 현재 시설 만족도 조사 실시로 잡혀있는데, 성과지표가 단순한 만족도 조사에 그치지 말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형석 의원(김제1)은 "복지국 세입에 산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이 13억원이 발

생하고 있는데, 이는 도에서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재원"임을 강조하며 "올해 안에 미수납된 예산을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오 의원(익산 1)은 "한약재유통 지원 시설 임대료 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도를 거쳐 가내시로 책정됐지만, 이후 진안군으로 확정내시가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통보됐는데, 이는 예산의 집행 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기학 의원(군산 1)은 정책질의를 통해 "현재 새남편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과 관련 진입로 조성은 사용되는 제강 슬래그로 인해 현재 거품이 다량 발생되는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적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세부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

## “현실성 있는 성인지예산 위해 지표관리 개선 시급”

교육위, 교육청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모니터링 가능 지표 실효성 없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지난 11일 제382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교육 현안에 관해 질의 한 후 도 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먼저, 최영일 의원(순창)은 "성인지 예산은 성차별을 없애고, 처우와 인식 개선이 목적인데,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가 실효성이 없어 성인지예산 수혜자를 선출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성인지예산이 현실성 있게 쓰이기 위해서는 지표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출장비 등이 포함된 기관운영비 불용액을 지적하며,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출장과 회의가 감소해 예비비 잔액 발생 이미 예정됐고, 결과적으로 1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발생했다"면서 "그런데도 작년 한 해 처우나 집행된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반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고 말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은 "신설 학교

의 경우 하자보수 발생 민원이 많다"며 "신설되는 학교가 이전 학교보다 더 높은 내구성을 가져야 함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빠른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문제에 미흡한 대처를 하는 시공사는 향후 학교건설 계약에 참여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과 같은 방안들을 고민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지속 노력을”

행자위, 자치행정국 등 대상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지난 11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자치행정국 등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소방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인건비 집행 잔액이 다소 발생한 것에 대해 "매년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월별 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잔액 발생 예상 시 추경을 통한 삭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순세계잉여금 중 의료급여기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추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정확한 세입추계와 철저한

예산 집행 계획 점검 등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경찬 의원(고창)은 "전북도의 정수물품과 관련 예산액이 전년 대비 과다 증가한 사유와 주요 취득 물품에 대해 질의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재 부위원장(전주4)은 "영세 납세자를 위한 고충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을 요구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폐·휴업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여성인력개발 사업 안정성 향상

이명연 도의원, 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례 발의



전북도의회 이명연(환경복지위원장 전주 11)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8일 환경복지위원회 의안심의를 통과,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명연 의원은 "이 조례는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전북도가 설치·지정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인력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본 조례안 제3조(사업)에 여성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은 물론, 여성의 취·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 제공,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북도 거주 여성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호상 기자

## 박용근 도의원 “전북도 지방세 재원 확보 노력 부족”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은 지난 11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제2차 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전북도의 지방세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년 20억 원이상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으며, 결산 처리되는 불납결산액이 29억 원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북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자체 재원 확충이 절실하므로 체납액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최근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세금은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대책 마련과 악질·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조치 및 압류 등 결산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 도내 기초의회 소식

### 전주형 뉴딜 이해도 제고

전주시의회 미래세대연구회, 그린뉴딜 특강

한국판 뉴딜과 전주형 뉴딜 사업에 대한 특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1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연구단체인 미래세대연구회가 주최한 특강(K뉴딜 바로알기 시리즈 2부 - 그린 뉴딜 편)이 지난 10일 의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특강은 한국판 뉴딜과 전주형 뉴딜 사업을 위해 주요 연구 주제로 삼은 미래세대연구회가 주요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했다.

강사로 나선 이종희 전북대학교 교수(전 대학원장)는 한국판 뉴딜 각 분야의 목표와 필요성, 진행 현황 등을 소개했다. 또 전주만의 특화된 뉴딜 사업 분야와 이를 위해 필요한 학술연



구 주재 등을 제안했다. 백영규 미래세대연구회장은 “광역 지자체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도 한국판 뉴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전주사민의 뉴딜사업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의회 행정위, 교도소 이전·신축 현장 활동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지난 11일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에 따른 전주교도소 인근 평화통 3가 내 이주 단지를 찾아 현장 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승섭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주단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현황 보고와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생계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과 가축·감축 차신 확보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교도소 신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작지마는



주민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행정이 하는 모든 일의 근간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주단지 조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의회 문경위, 전주문화재단 추진사항 점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지난 11일 팔복예술공장을 찾아 전주문화재단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주문화재단은 팔복예술공장, 전주한벽문화관 등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시설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전주시 출연기관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블루 극복의 매개체로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일상화와 보다 창의적인 문화 플랫폼 구축 독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승섭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은 전주문화재단 현황 보고 및 주요 추진 사업 등을 청취하고, 팔복예술공장과 같은 전주만의 다양한 문화재생사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예술로 모두의 삶이



빛나는 전주를 기치로 지역 문화 진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주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등 본연의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